

# “남원다(多)움…춘향골 멋과 맛에 반했어요”

전국 공무원들 탐방교육 인기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 온 기분”  
참가자들 남원 체험 호평

“춘향골 멋과 맛에 반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온 기분입니다.” 남원시가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춘향골 남원 탐방 교육 ‘남원다(多)움을 말하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시작해 2년째 이어오고 있는 춘향골 남원탐방 교육은 남원시의 풍부한 문화·역사·관광·생태자원을 알려 관광소득 창출로 유도하고, 힐링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공직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춘향골 남원탐방교육에는 전국에서 공무원 31명이 참여해 남원의 품격 높은 역사와 문화를 보고 체험했다. 교육생들은 15일에는 남원의 관광랜드마크인 광한루원과 만인의총, 춘향테마파크를 둘러 보고 천년남원의 문화와 역사를 느꼈다. 숙박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한



춘향골 남원탐방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남원의 관광랜드마크인 광한루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전통한옥호텔 남원예촌에서 했다. 교육생들은 16-17일에는 지리산둘레길과 국악의 성지, 지리산허브밸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혼불문학관 등 남원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자원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남원

예촌,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전통음식 등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온 기분이다”며 “춘향골의 맛과 멋, 소리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홍성 남원시 총무과장은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을 통해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

을 꽃피운 사랑의 도시이자 판소리 동면제의 발상지, 왜구를 토벌한 황산대첩지, 1500여 년 전 화려한 철기를 꽃피운 가야유적 등 역사·문화유적을 알려 문화 관광 도시 남원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광양 백운산 국사봉 철쭉보러 오세요”

내일 철쭉제 개막…산상음악회·보물찾기 등 행사 다채

남도의 명산 백운산 국사봉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제14회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철쭉, 자연, 인간 그리고 국사봉과의 만남’ 슬로건을 내걸고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백운산 국사봉은 남쪽에서 철쭉축제가 가장 먼저 열리는 대표 명소로 약 35ha의 철쭉동산과 50년 이상 된 아름드리 편백 숲 둘레길 4km가 펼쳐져 봄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사진> 특히 국사봉 정상에서 바라본 남해바다와 광양만, 세계 최고의 일관제철소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웅장한 이순신대교 등 아름다운 조망을 자랑한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각설이 공연, 레

크레이션 등 부대행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광양시립합창단 공연에 이어 개막식과 경로위안잔치, 제1회 서승일 가요제 본선이 육곡면민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철쭉꽃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먹거리장터를 운영한다. 셋째 날인 21일에는 철쭉 등산로와 편백숲을 따라 오르는 국사봉 등반대회가 열리며 정상에서는 산상음악회가 펼쳐진다. 또 추억의 보물찾기와 산나물 캐기, 즉석 사진 촬영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정읍 학산중학생들 “환경 중요성 깨달았어요”

전남자연환경연수원서  
환경 골든벨·숲밭줄 놀이 등  
‘초록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정읍 학산중학교 학생들이 전남자연환경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환경교육에 참여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초록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에서는 안전교육, 환경 골든벨과 환경 특강, 팀 데몬스트레이션(바운딩볼·파이프라인·단체줄넘기), 숲밭줄 놀이, 미세먼지 바로알기, 에너지 수첩만들기, 환경 마스크 만들기, 카프라 쌓기, 축제의 밤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의 ‘초록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받고 환경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또 지렁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환경 애니메이션 ‘지렁이 똥 이야기’ 시청하고 캠프를 마무리했다.

‘지렁이 똥 이야기’는 학생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생물들도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구환경보존의



‘초록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에 참여한 학산중학교 학생들이 숲밭줄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임찬규 학산중 교감은 “가정을 떠나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법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수련활동이었다”며 “기

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 드론축구, 국제 경기 인정

국제항공연맹(FAI)이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보급한 드론축구를 국제경기로 공식 인정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항공연맹(FAI) 모형항공기위원회(CIAM)의 국제회의에서 ‘드론축구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규정 채택은 드론축구가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항공스포츠로 인정 받았다는 의미다. 앞으로 드론축구는 항공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시범경기로 열린다. 향후 2년 동안 시범경기를 가진 후 정식종목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국제대회 첫 선은 제주도에서 펼쳐진다. 올해 국제항공연맹(FAI)이 주최하는 ‘드론레이싱 마스터즈대회’가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국제대회로 인정받은 후 첫 드론축구 시범경기를 선보인다.

향후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전국 드론축구대회와 해외 선수단 초청경기, 국제 시범경기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고, 국외 선수단과 지부를 확장·설립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국제대회로 공식 인정 받아 ‘2025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명인작품 특별 초대전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문화예술 명인작품 특별 초대전시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전은 시민의 전통예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통예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열린다. 센터에는 한국예술문화 한국예총 한국예술문화명인 제6기 회원 14명과 전라권협의 회 작가 26명이 작품 52점을 전시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귀금속, 전통 투각법, 규방, 조각보, 한지, 생활조형디자인, 전통서각, 장식미술, 전통장승, 압화 등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센터 측은 도예, 화예, 전통제조 등 각양각색의 명인작품을 한 자리에서 실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군산소방서, 수학·수련 활동 기간 맞아 소방점검

군산소방서는 본격적인 수학·수련 활동 기간을 맞아 ‘인심수학여행서비스’ 소방점검을 펼친다. 인심수학여행서비스란 군산으로 수학 여행 또는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학교에서 사용될 숙박시설에 대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 환경을 조성해 주는 안전서비스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소방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수련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상태 확인,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피난시설·대피로 및 자체 피난안전 대책을 확립하고,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 남구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